

52 보일러관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피부암

성별	남성	나이	50세	직종	보일러 관리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8년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가공 및 보일러 관리 등의 공무 업무를 23년간 수행하였고, 2008년 음낭, 종아리, 발의 피부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고, 2010년에는 하지부위의 편평세포암과 복부의 기저세포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의 주 업무는 염색가공시 사용되는 보일러의 관리이며, 현장에서 발생하는 염색가공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정비, 보수,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작업은 12시간 수행하였고, 매월 2회 휴무하였다. 보일러실의 소음 노출이외에 취급하는 특정 화학물질은 없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물리적요인(소음)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, 특이 가족력은 없었다. 1995년 목 부위의 기저세포암과 좌측어깨부위의 Bowen병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으며, 2008년 하지 피부에 딱지가 앉고 출혈이 동반되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생검상 피부의 편평세포암과 기저세포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받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약 23년간 염색 가공업체에서 기계정비 및 보일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피부암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자외선, 전리방사선, 비소, 검댕 등이 있으나,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, 따라서,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